

## 언론동향(9. 15.)

### 《언론보도 목차》

1. ‘DMZ 문화예술삼매경 고성’ 참여작가 공모 (강원일보) ..... 2
2. 올 Let’s DMZ ‘남북 수자원 공동관리’ 화두 오를까 (경인일보) ..... 2
3.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통일부 “속히 채널 복원되길” (동아일보) ..... 3
4. 강원도, ‘남북 독자 교류 추진 (경인일보) ..... 별첨
5. “DMZ는 평화를 원한다”...‘2020 DMZ 포럼’ 17일 온라인 개최 (KBS) ..... 별첨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20년 9월 15일 기사입니다.

## 'DMZ 문화예술삼매경 고성' 참여작가 공모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김필국)이 'DMZ 문화예술삼매경 'Re:MAKER' 고성' 프로젝트에 참여할 작가를 공모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고성 현내면 명파리 소재의 'DMZ 비치하우스' 건물 외부에 투사하게 될 미디어아트 콘텐츠와 건물 내 객실을 작품화하는 아트 룸 조성 등 2개 분야에 대한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모집 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이메일(gwcf\_dmz@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재단은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오는 25일 오후 1시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작가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심 있는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수빈기자 forest@kwnews.co.kr



올 Let's DMZ '남북 수자원 공동관리' 화두 오를까

**2회 행사... 17~18일 온라인 개최**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포럼 참여**

**李志사 기조연설 '협력사업' 제안**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여파로 당초보다 축소해 개최했던 경기도의 Let's DMZ 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란 복병을 만났다. 도는 대부분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대신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인데, 최근 북한강·임진강을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제기한 이재명 도지사가 해당 구상을 본격화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도는 17일 'DMZ 포럼'과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개최로 Let's DMZ의 막을 연다. Let's DMZ는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도가 지난해 시작한 DMZ 종합 행사다. 지난해 오랜 기간 공들여 1회 행사를 준비했지만, 그해 9월 ASF가 경기 북부지역을 강타하면서 관련 행사를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했다.

2회 행사를 치르는 올해는 코로나19가 덮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스포츠 행사 등은 사실상 취소됐지만 DMZ포럼과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Live DMZ 등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 중 DMZ 포럼으로 Let's DMZ를 시작한다. 17~18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DMZ는 평화를 원한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16개 세션으로 구성되고 패널은 9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201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베리아 출신 평화운동가 리마 보위, 국제관계학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 조셉 나이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하기도 한다.

여기에 이 지사가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북협력 사업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라, 최근 필요성을 역설한 남북 수자원 공동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초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통보 없이 개방해 연천·과주 저지대 위험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이후 이 지사는 임진강과 북한강을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DMZ 포럼은 다양한 주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통일부 “속히 채널 복원되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을 맞아 “하루속히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복원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공동연락사무소 경영이 중단돼 남북 간 기본적인 연락체계도 갖추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9월14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으로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그사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빠라) 살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남북관계는 최근 들어 급속도로 경색됐다. 결국 북한은 지난 6월 6일에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여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남측 조직 운영 계획을 묻자 “현재 조직은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계기로 대북 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선 “통일부에서 별도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